

'5000피' 이어 코스닥도 '천스닥' 시대

장중 6%대 급등 1000선 회복
9개월여만 매수 사이드카 발동
바이오·이차전지주 상승 견인

코스피가 '꿈의 5000피' 시대의 문을 연 데 이어 코스닥이 4년여 만에 1000선을 회복하며 이른바 '천스닥' 시대를 공식화했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렐리에 이어 중소형 성장주의 상징인 코스닥까지 강세 흐름에 합류하면서 '삼천스닥'을 기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장중 6% 넘게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강한 매수세가 몰렸다. 기관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바이오·이차전지 관련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상승을 주도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 1000선을 넘어선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금융투자(2조 1012억원) 순매수 강도가 강했고 연기금(1487억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4434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072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는 일제히 급등했다.

메지온(29.55%), 레인보우로보틱스(25.97%), 에코프로(22.95%), 에이비엘바이오(21.72%), 에코프로비엠(19.91%), 케어젠(16.94%)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번 '천스닥' 돌파는 코스닥 시장의 체질 변화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고 '투기'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이차전지·바이오·첨

단소재 등 미래 성장 산업 비중이 커지면서 중장기 성장 시장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코스닥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오·이차전지주 강세가 지수를 밀어 올린 분위기다. 지난 22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선 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코스닥지수는 2.4% 급등해 990대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단기 이벤트'로만 해석해선 안된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구체화한다면 주가 상승세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바이오주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등이 나오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건전성 강화·내실 성장 등 4대 과제 추진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광주은행은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4대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상반기 경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사진>

이날 회의는 2025년 하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상반기 경영 방향과 중점 추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우수 실적 영업점·직원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한국리서치로부터 임직원 인식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데 이어 조직문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과제 등도 논의했다. '법무법인 이우스' 강성두 변호사는 이날 기업회생 대응 관련 조정 특강을 진행했으며, 기업회생 제도 전반과 금융권의 대응 방향을 살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날 "최근 글로벌 관세 부과·영향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금융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생산적 금융·포용금융 확대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올 상반기 금융 혁신을 위한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자산 리밸런싱', '건전성 강화', '채널·인력 체질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내실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공유된 중점 과제와 세부 실행 전략들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경제계 "배임죄, 과도한 기업 경제형벌...조속히 전면 개편을"

경제8단체, 국회·법무부에 호소

경제계가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배임죄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꼽히며, 외국 기업인도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의 짧았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우려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기종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죄를 경영 부담을 가중할 조건 없이 조속히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경우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성 요건에는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 행위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기소하

는 관행을 탈피할 것도 주장했다. 정별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재판 전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정보·증거를 상호 열람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상법과 형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단체들은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총수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합법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외 적용 등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회복지·간호·도배 등

여성 직업 교육 훈련생 모집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주새일센터)는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해 '2026년 여성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며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사회복지 행정실무, 간호 전문 인력 양성, 도배 실무자 양성, K-푸드 전문가, 인공지능(AI) 융합 오피스 마스터 양성 등 총 5개 과정이다.

각 과정은 자격 취득·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취업 의사가 분명한 미취업 여성이나 재직 여성이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참여자에게는 참여 축전 수당 최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도배 실무자 양성 교육 수강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대 35만원과 교통비가 별도 지급되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과 수료 후 취업 상담·알선 등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미희 광주새일센터 센터장은 "직업교육훈련

은 여성들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전문성을 갖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들의 관심과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대학생 동계 현장실습'

이동훈(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광주신세계 대표이사가 광주신세계 동계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4주간 전남대와 조선대에 다니는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한 '2025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실습생들은 영업, 마케팅, 팝업 스토어 기획 등 실무 위주의 과제를 수행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소비심리 8개월째 안정세 지속

광주·전남 지역 소비심리가 8개월째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중 지역민들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0으로 전월 대비 0.7포인트(p) 하락했다.

CCSI는 지난 20년간의 장기 평균치를 기준치 100으로 두고,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광주·전남 CCSI는 지난해 6월(101.4) 이후 8개월 연속 기준치를 넘어 상승하는 추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이상 일어난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성지수의 기여도별로 보면 '현재생활형편(0.5p), 소비자출전망(0.7p)'은 전월보다 올랐지만, 생활형편전망(-0.8p), 가계수입전망(-0.7p), 현재경기판단(-0.2p), 향후경기전망(-0.1p)은 하락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ICON, 30일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공모 준비 1대1 맞춤형 상담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30일 광주CGI센터 3층 영상시사실에서 '2026년 GICON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를 대상으로 올해 추진 예정인 콘텐츠 분야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콘텐츠진흥본부 및 영상영화사업단 콘텐츠 지원사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지원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각 사업별 신청 요건, 일정

및 지원 절차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사업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지원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공모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도 운영한다.

지원사업 설명회 사전 등록은 GICON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안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창작자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40·50대, 러닝 소비 증가율 20·30대 웃돌아

올다무 소비도 활발 시장 확대 주도

지난해 40·50대의 러닝 관련 소비가 20·30대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BC카드가 20~50대 러닝 소비 관련 지난해 카드 사용 데이터를 전년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매출액 지수(2024년 100 기준)는 173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162), 20대(129), 30대(125) 순이었다.

BC카드는 "러닝이 단기적 유행을 넘어 건강·자기 관리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소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40대 이상의 소비층 유입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0대는 이른바 '올다무'로 불리는 올리브영·무

신사·다이소몰 부문에서도 소비력이 두드러졌다. 올다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연령별 매출액 지수(2022년 100 기준)를 산출한 결과 40대는 지난해 142로, 올다무의 전통적 주 소비층인 20대(142)와 같았다.

2023년 까지만해도 20대(123)가 40대(113)를 크게 웃돌았지만, 2024년 40대(140)가 20대(138)를 앞질렀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BC카드는 "영포티(젊은 40대)" 고객이 20·30세대에 만든 소비 트렌드를 선별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구매력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시장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생리대업체들, 중저가 신제품 연이어 출시

우리나라 생리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생활용품업계에서 중저가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신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기존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새로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현재 '좋은느낌 순수'와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를 통해 중저가 생리대 3종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 중 좋은느낌 순수의 경우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대표 제품과 비교해 공급가가 반값 수준이다.

유한킴벌리는 2016년 일부 취약계층 여성들이 생리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중저가 생리대를